

대학생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

김장현*, 이유림**

*디자인 팩토리

**신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e-mail:jamie8122@naver.com

Undergraduate Students'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Jang-Hyeon Kim*, Yu-Rim Lee**

*Design Factory

**Dept. of beauty design, Shin-Gy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성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미용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성형에 대한 사례의 탐색 및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한 후, 최종적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 성형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고찰해본 결과, 빠르고 자연스러운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면에 부작용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미용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경우,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미의 기준이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 사회적으로 외모지상주의적 경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용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경우,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개선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감 및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기반을 둔 함의점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격체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미용 성형에 대한 지나친 편견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용 성형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외모로 상대방의 전체를 단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대중 매체들의 동참이 병행될 시, 올바른 미용 성형 문화의 정착과 함께 외모가 미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1. 서론

현대사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 명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외모지상주의나 인간을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지만, 산업화·자본주의 시대에서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이 사회의 성공과 자아 만족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신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는 부작용의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독립적인 성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와 습관이 정착되는데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시기[1]임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미용 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 성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미용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이해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미용성형에 대한 올바른 문화정착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성형의 개념 및 대학생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 성형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그 경향에 대해 고

찰해본다. 셋째,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수행한다. 셋째, 앞서 진행한 서술 응답을 수합 및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미용 성형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 성형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고찰해본 결과, ‘예쁜, 빠른, 가능하다, 잘하다, 자연스러운’의 긍정적인 키워드가 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립적인 키워드는 ‘똥다, 다양한’이 15%, 부정적인 키워드는 “고민, 부작용, 똥똥하다”로 나타났다. 이 같은 키워드로 미용 성형에 관련된 경향을 살펴보았을 시, 빠르고 자연스러운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면에 부작용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 서술 응답을 수행해본 결과, 47명의 학생이 미용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명의 학생이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주된 내용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른 타의적 강박, 성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자기 만족도의 불 충족으로 인한 성형중독, 사회적 격차의 가속화 등의 여러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미의 기준이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 사회적으로 외모지상주의적 경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주된 내용으로 실질적 외형 변화를 통한 긍정적 정서 획득, 사회의 흐름에 대한 동참, 불가항적 상황에서 발생한 외상에 대한 치유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개선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감 및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미용 성형과 관련된 감성어에 대한 분석과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토대로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면, 외모로 상대방의 전체를 단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대중 매체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획일적 미의 기준으로 서로간의 차별적 시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개성에 적합한 신체상과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면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포용적 시선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 행위가 개개인의 선택에 대한 의지이자, 자기표현 수단의 하나임을 고려해본다면, 성형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함양하는 행위가 아닌 개개인의 삶의 질적 개선과 자존

감의 충족을 이끌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에 대한 지나친 편견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용 성형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격체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본다면, 올바른 미용 성형 문화의 정착과 함께 외모가 미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